

## 질병세미나, 풍성한 내용에 농가들 주목



▲ 질병세미나 장면(위부터 남부지역, 중부지역, 경기지역)

본 회에서는 해마다 한번씩 농가 질병교육을 위해 전국 닭 질병 방역 순회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는 5월 8일(안양 국립수의과 학검역원), 10일(대전 충남대학교), 15일(경주 현대호텔) 3일간 경기, 중부, 남부로 나누어 개최되었으며 총 450여명의 양계인들이 참석하였다.

정부·학계·수의사 등 양계 관계자로 중심으로 강사진을 이룬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양계질병 방역 정책은 물론 HPAI 발생의 역학적 특성, ND채혈의 중요성, LPAI 특징과 백신접종, 마이코플라즈마 예방 등 5개 주제로 세분화 되어 진행되었다. 세미나가 4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강의를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계농가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강의에 열의를 보였다. 한편 경주지역에서는 김기석 경북대학교 수의대 교수가 초청되어 '최근 양계질병'에 대한 발표가 더해졌다.

올해 세미나의 지역적 참여율을 보면 농번기 일정과 어버이날 등 지역 행사 일정이 많이 겹친 가운데 경기와 중부의 경우 지난해보다 참석한 양계인들이 다소 줄어든 경향을 보였다. 반면 오랜만에 개최된 경주지역의 경우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지역 양계농가들이 대거 참석하며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

## 1. 정부의 양계질병 방역정책

### ▶ 장기윤 농림부 가축방역과 서기관

정부의 양계질병 방역정책중 AI 방역대책으로 '06년 11월 22일부터 총 7건 발생하여 460농가 닭·오리 등 2,800천 마리를 살처분·매몰 및 감염이 우려되는 인접농장 돼지까지 예방 살처분하여 바이러스 변형 가능성을 차단했으며 역학조사 결과 철새를 통한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살처분 및 이동제한 등 HPAI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농가들에게 501억원의 자금이 투입되었으며 AI 청정국 지위 회복절차를 추진에 있어서는 OIE 규정에 따라 3개월이 경과한 '07년 6월 17일에 종식선언이 이루어질 것임을 밝혔다.

한편 닭 뉴캐슬병 방역상황은 뉴캐슬 근절대책에 따라 단계적으로 총 52억원의 예방약 지원이 투입되었으며 부화장·양계농가에 예방약 100% 지원으로 발생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고 종계장·부화장 방역대책에 있어서는 살모넬라 감염종계의 경우 도태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2. 우리나라 HPAI 발생 역학적 특성 및 대응전략

### ▶ 이상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과장

HPAI 발생과 관련하여 그동안 발생농장과 관련한 현장조사와 실험실 검사, 유전자분석, 겨울철새·털새포획 및 검사, 겨울철새 서식지와 양계·오리농장과의 발생 인과관계, 숙주의 분포, 전파요인의 분석 등 발병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조사한 내용이 발표되었다.

특히, 철새의 이동경로 조사에 따른 인과관계 설명에서 2006년에는 AI형질형이 칭하이주로 지난 2003년과 다른 혈정형을 갖고 있으며, 일본에 발생한 것도 같은 분리주인 점을 감안할 때 철새에 의한 국내유입을 99%로 단정하였다. 다만 HPAI에 감염된 철새가 농장에 직접적으로 유입되기보다 주변 텃새와의 접촉을 통해 농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세계의 AI 발생상황 및 역학적 특성, 우리나라의 AI 발생상황 및 역학적 관계를 분석하여 향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활동과 HPAI 비 발생국 지위회복까지의 설명이 있었다.



### 3. ND채혈활동 및 가축방역의 중요성

▶ 노천섭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문

2007년도 농림부 닭 뉴캐슬 방역시책을 알아보고 방역의 중요성과 양계농가 자율방역의식 증대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는 07년 닭 뉴캐슬병 방역정책에 따라 양계농가들을 대상으로 시료채취물량을 연간 456,900건으로 계획하고 진행중에 있으며 질병방역 차원으로 하는 채혈의 중요성을 농가들이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했다.

한편 “농장에 장화가 몇 개 필요한가?” 양계농가에게 질문을 던지며 질병전파의 주요인으로 분변을 통한 농장주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전하며 농가 스스로의 자율방역에 힘써야 함을 강조했다.



### 4. 농장에서의 마이코플라즈마 예방

▶ 한태욱 강원대학교 수의대 교수

▶ 반 덴 보쉬 인터베트 기술고문, 통역 : 김선중 서울대학교 수의대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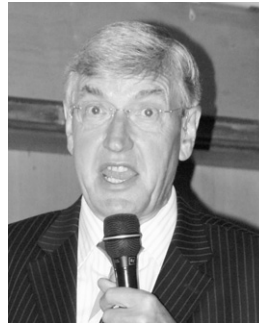
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한 증상·진단·대처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마이코플라즈마에 따른 병아리폐사, 성장지연, 도계장 비품, 산란율 저하 등의 직접손실과 감수성 증가에 따른 대장균 감염, 면역억제 등 간접적 손실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수직감염이나 정액 등에 의해서 감염되며 실험실상 6~21일의 다양한 잠복기를 가지고 있으며 질병의 발생과 임상증상이 다양하여 실험실 확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전했다.

임상증상으로는 사료섭취 감소로 인한 체중저하, 산란율 저하, 무증상 감염 등이 있으며 특히 수탉의 증상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난다.

마이코플라즈마 갈리셉티쿰 관리는 도태, 항생제 처치, 백신접종이 있으며, 항생제 처치의 경우 계란내 항생제 잔류 문제로 계란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한태욱 교수



▲ 반 덴 보쉬 기술고문



▲ 김선중 명예교수

고 전했다. 한편 비병원성 생균 MG 백신 Nobilis MG 6/85의 경우 고온 분무로 5주령 이후에 실시하여 산란중 마이코플라스마 갈리셉티쿰 감염에 의한 임상증상을 낮출 수 있도록 능동면역을 획득할 수 있다고 전했다.

## 5.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백신(H9N2)접종 및 근절방안

### ▶ 손영호 반석기금진료연구소장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저하시키고 있는 LPAI 발생특징과 근절방안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발표되었다.

여름철 계군에 피해를 거의 주지 않는 반면 겨울철에 극심함 피해를 가져오는 이유는 열악한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의한 것을 강조하며 계사내 좋은 환경을 유지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전했다. 또한 LPAI 발생 시 항생제 투약은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전하며 감염초기 대증요법 처방으로 2차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내 LPAI 근절을 위해 시행되는 백신접종에 대해서는 백신의 사용 배경 설명과 함께 시험결과 높은 안전성과 농가의 LPAI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일부 육계농가들이 고병원성으로의 전이 가능성을 우려하는 질문에는 백신의 안전성이 확인되어 정부에서 접종을 허락하였고 백신접종시 계사당 비접종군 20수를 대조군을 두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님을 설명하였다. **양계**

